

지역 소식통

고창군, 노후 육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육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에서 건물 내 설치된 급수관을 대상으로 녹물과 이물질 제거하는 관세척 사업과 노후관 갱생·교체 등을 진행한다.

군은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약 150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 육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대상은 △1순위=기준 중위소득 46~60% 중 이연도강관 재질 육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 △2순위=기준 중위소득 46~6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3순위=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주택 거주 세대다.

노후 육내급수관 교체사업 사업신청은 읍·면사무소 통해 접수하면 현장조사 뒤 지원여부를 판단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올바른 의식개선 교통문화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28일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통해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택시모범자문회 회원과 부안경찰서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력부안 교통문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매력부안 교통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교통문화 정지선 지키기, 주정차 위반 안하기, 주차장에 주차하기 등 주민에게 홍보하였다.

군은 읍 지역내 혼잡한 주차난 해소기 위해 기 설치된 부안마실 공영 주차장 전동시장 공영주차장 등 읍권 곳곳에 설치된 주차장을 운전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입택명 건설교통과장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CC무인단속 및 이동형 단속차량을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민관 손잡고 악취 해결 나선다

### 환경 친화 도시 정읍, 제 1차 악취 대책 협의회 열어

정읍시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민원과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어왔던 각종 마을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일 '제1차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는 행정과 민간이 참여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함께 발굴해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 기구다.

협의회는 최재용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축산부서 공무원과 시의원, 악취 주요 발생지역 주민대표, 환경단체, 악취배출시설 관계자, 전문



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악취관리IT팀장의 협의회 소개를 시작으로 악취 관련 현황과 추진사업을 보고했다. 이어 최재용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대표와 환경 관련 단체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악취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

다.

특히, 사업장 악취 관리뿐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생활악취 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농가 악취배출시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선이 미흡한 시설은 고발·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악취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해 모니터링하는 등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제갈악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 친화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농업 현장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 정읍시농기센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 ‘성료’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8일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평가회는 사업별 주요 시설과 포장에서 현장평가로 진행됐으며 작목·품종별 작황과 병해충 감수성, 예상 수확량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적응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기계화 재배 기술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경영분석, 신품종의 지역 재배 특성, 병해충 감수성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에 총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6개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밭파종은 신품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밭작물 기계화 재배를 통한 노동력 절감 사업, 바이오차와 논물 관리 기술 사업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 단지 육성사업으로 최고 품질 벼 품종(참동진, 해풍 등) 재배 단지를 조성해 식량작물 경쟁력을 강화했다.

생산물은 한우리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지역브랜드 '시암골알찬미, 내고향지킴이쌀' 제품으로 전국에 공급하게 된다.

김원심 자원개발과장은 "올해는 쌀 값 하락과 이상기상, 노동 인력 감소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현장 기술지원과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

### 부안군, 10월 2~3일 진행

부안군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현장평가단은 말레이시아 "이브라힘 코무" 평가위원 및 폴란드 "월로신 자코다" 평가위원과 전문위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방문하여 채석강, 적벽강 그리고 위도 대월습곡 등 지질명소와 지오파트너, 지오볼피지 현장 확인 위주로 평가를 한다.

부안군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명소를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준받아 학술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은 그동안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와 유네스코에서 추구하는 교육, 관광, 기반시설 등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요건에 맞게 2018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

특히,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부안군이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단은 "채석강과 적벽강 습곡, 위도 대월습곡 및 공룡알 화석지 등의 지질명소 가치와 탐방기반시설을 확인하고 주민속에서 지질공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 주민 지질공원 교육과 주민협력 사항 등 지질 관련 지역생산물까지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정읍시, 아삭 식감 '정읍 태추단감' 본격 출시

### 10월 1~3일 녹두장군휴게소 내 행복장터서 홍보·판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소득 과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정읍 태추단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태추단감의 수확철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호남고속도로 상행 녹두장군휴게소 내 행복장터에서 관측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타지역 소비자들에게 정읍 태추단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높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에서는 시식과 관측물 배부 등을 통해 정읍에서 재배한 질 좋은 태추단감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정읍 태추단감은 평균 18브릭스의 높은 당도로 일명 '배단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아삭이삭한 식감과 단맛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다른 과일과 비교해 월등한 맛을 자랑하지만, 저장이 어려워 10월 수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로 손꼽힌다. 정읍 지역에서는 1997년 처음 재배되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는 65개 농가 32ha에서 재배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태추단감은 농가소득 특세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태추단감의 고유 특성을 제대로 살려 태추단감 주 생산지로 거듭나 전국적인 브랜드로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제5대 연구소장 이희권 박사 선임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삼덕섭)가 27일 고창군청 2층 상 황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연구소장으로 이희권 박사를 선임했다.

이희권 박사는 1985년 전북대학교 대

학원 농생물학과 박사 취득후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센터 초빙교수를 거쳤다. 또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연구개발실장(4년) 파견 등 학계 연구기관 및 농업 기술센터 등에서 여러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신임 이희권 연구소장은 "지역 농·특산자원을 연구 개발하고 그 결과를 지역 기업에 지원하는 역할과 싱크탱크에 걸맞는 연구를 운영하겠다"며

"지역 기업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기술 개발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덕섭 이사장은 "앞으로 연구소는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는 고창군 민이라면 누구라도 식품기업 대표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기술이전 및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